

“새 사람을 입으라”

바울은 마치 옷을 입고, 벗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옛 사람을 벗어 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요즘은 새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외모를 바꿉니다. 새 사람처럼 보이는 가장 쉬운 방법은 새로 산 멋진 옷을 입고 사람들 앞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옷을 잘 차려 입으면 “딴 사람 같다. 멋지다” 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살을 빼서 새 사람이 되어 보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성형 수술을 통해 새 사람이 되어 보려고도 합니다. 물론 이러한 노력들은 새로운 삶, 제 2의 인생을 살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외적인 변화를 통해서 자신감을 갖고 활기차게 살아간다면 그것은 분명 좋은 변화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은 단순히 옷을 갈아 입는다는가, 살을 빼고, 성형수술을 하는 것과 같은 외적인 변화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23절은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라고 말씀합니다. 겉모습 뿐만 아니라 속 사람까지, 마음까지 새로워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만약 노예였던 사람이 자유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노예의 팔찌나 목걸이를 걸고 있다면, 또 감옥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수복을 입고 거리를 돌아다니는 다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이제 그만 노예의 팔찌를 풀어 버리세요, 죄수복을 벗어 던지세요.”

“당신은 자유입니다. 자유인처럼 새로운 삶을 살아야지요.”

혹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속에 영접했으면서도, 예수를 닮은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아직 새 사람을 입지 못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겉사람과 속사람이 모두 ‘새 사람’ 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겉사람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말과 행동과 옷차림과 태도가 단정하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또한 속사람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마음의 중심, 심령이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사람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죄의 사슬에 얽매어서 죄의 노예로 살던 사람, 거짓과 속임수로 살아오던 사람이 죄악의 역사를 끊어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역사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군사로서 일어나, 다시 세상 속으로 전진해야 합니다. 2018년 새해를 맞이하여, 하나님 안에서 겉사람과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은혜와 축복의 삶을 살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2019 가정이 신앙의 주체입니다

신 6:5-7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 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_ 엡 4:22-24





가족예배 순서

예배로부름	시편 1:1-6	인도자
신앙 고백	사도신경	다같이
찬 송	가족들에게 의미있는 찬송	다같이
기 도		말은이
성경 봉독	엡 4:21~24	말은이
말씀 나눔	새 사람을 입으라	인도자
기 도		인도자
찬 송	285장	다같이
주기도문		다같이

에베소서 4 : 21~24

- 21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 22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 버리고
- 23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 24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엡 4:24)

 우리 가정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함께 암송할 말씀)

 우리 가정에게 주신 기도제목

가정 사명 선언문

2018 표어는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 입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이 표어에 따라 “가정 사명 선언문” 을 만들어 봅시다.

2018년 우리 가정은 _____

_____ 이(가) 되겠습니다!